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제28권 제3호
Herbal Formula Science
2020;28(3):289~300
pISSN 1229-1218, eISSN 2288-5641
https://doi.org/10.14374/HFS.2020.28.3.289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Available at http://www.formulastudy.com HFS

Review Article / 종설

# 고려 의서 『향약구급방』의 임상 의학 특징 분석

오재근[1], 김상현[2], 이기복[3], 전종욱[3], 신동원[4*]

[1]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2]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3]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4]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 An Analysi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on the Medical book of Koryŏ Dynasty, *Hyang'yak Kugŭppang* (鄕藥救急方, *Medical Recipe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Chaekun Oh[1], Sanghyun Kim[2], Kiebok Yi[3], Jongwook Jeon[3], Dongwon Shin[4*]

[1]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Institute of Medical Humanities, Inje University
[2]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4]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In this paper, We pointed out medico-historical meaning of Hyang'yak Kugŭppang (鄕藥救急方, Medical Recipe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a medical book of Koryŏ Dynasty, breaking from the existing analysis view based on Hyang'yak (鄕藥), local herbs produced in Korean Peninsula.

**Methods :** For that purpose, we analyz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and symptoms, strategies of treatment, therapeutic tools, drug formulations, composition of herbal formulas in Hyang'yak Kugŭppang.

ⓒ 2020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This paper is available at http://www.formulastudy.com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ults :**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in Hyang'yak Kugŭppang. First, it contained a way to cope with the diseases and symptoms that do not have to check the exterior, interior, cold, and heat. Also, it introduced basic strategies such as reducing, facilitating flow, draining downward, warming, or tonifying, etc. It mainly included herbal medicine as the therapeutic tools, and introduced formulas composed by single herb than complex recipes. It suggested external applications more than internal use, and proposed formulations in the form of decoctions or powders, etc. The herbs of formulas were used by experience without explanations of nature & taste, efficacy of each herbs.

**Conclusions :** Hyang'yak Kugŭppang is a book of medical recipes for emergency use that has been distributed to help gentries, even if they do not have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to instantly cope with diseases and symptoms with medicines that are easy to obtain. Previous researches has analyzed the value of Hyang'yak Kugŭppang a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of hyang'yak, and used it as a historical basis of the uniqueness of Korean medicine. Since Hyang'yak Kugŭppang is not a book specialized for herbs, but rather a clinical medical book that introduces recipes for specific symptoms of diseases, if we pay attention to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yang'yak Kugŭppang,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describe Koryŏ or Korean medicine in a new way.

**Key words :** Hyang'yak Kugŭppang (鄕藥救急方), Medical Recipe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Hyang'yak (鄕藥), medicine of Koryŏ Dynasty, History of Korean Medicine

## Ⅰ. 서론

> "이와 같이 향약(鄕藥)의 사용을 권장케 한 것은 의약에 대한 자주적 정책을 수립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본 방서(方書)가 간행되던 고려 중기의 후반기부터 향약 자립의 기운이 맹동되게 되었다."[1)]

한국 의학사 연구를 개창한 김두종(1896-1988)은 『향약구급방』의 역사적 의미를 약물학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했다. 먼저 그는 중국산 약재를 당약(唐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 자국산 약재를 총칭해 향약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향약구급방』의 간행으로 우리 의약이 자주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2)] 『향약구급방』을 매개로 한반도 의학의 자주성, 독자성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며 중국 의학과 다른 한국 의학만의 특징을 규정했던 것은 김두종이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 다만 그의 논의는 『향약구급방』에 담긴 약물학적 성과 중심으로 이뤄졌다.[3)]

『향약구급방』을 바라보는 김두종의 관점은 후속 연구자들을 통해 계승됐다. 신영일은 의학 이론은 중국의 것을 따르더라도 약물만큼은 자국산 약재인, 향약을 사용하는 과도기적인 형태이거나 독자적인 의학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4)] 이경록 역시 의서 중에 '향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은 중국산 약재와 비슷한 약효를 지닌 토산 약재의 수급과 약성을 대자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서술하며 향약의 반복적인 활용과 의술의 축적을 토대로 『향약구급방』에서 고려 의학의 자주성

*Corresponding author : Dongwon Shin.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Republic of Korea.
Tel : +82-63-270-3433, Fax : +82-63-270-3434, E-mail : newsdw@jbnu.ac.kr
•Received : July 10, 2020 / Revised : August 20, 2020 / Accepted : August 24, 2020

1)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141.
2)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141.
3) 김두종이 『향약구급방』에 담긴 임상 의학적 성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저작 중에서 『향약구급방』 중에 피부과나 치과 병증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밝혀두기도 했다(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169). 김두종과 함께 한국 의학사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한 미키사카에 역시 『향약구급방』의 본초학적 성과에 주목했다. 미키사카에는 『어의촬요방』과 『향약구급방』에 대해 한반도 전래의 고유한 의방을 집성한 것, 고려 고유의 의학이 표현되고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고려 시기의 본초학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며 본인 저작 중에 『향약구급방』「방중향약목초부」 전문을 수록해두었다(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61, 91-96).
4) 신영일. 鄕藥救急方에 對한 硏究: 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4:178.

이 담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5]

그렇지만 향약 의서를 매개로 논의되어온 이른 바 '향약 의학'은 중국 의학 이론을 벗어난 독자적인 의학으로 볼 수는 없다.[6]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기미론(氣味論), 귀경론(歸經論) 등의 의학 및 약물 이론은 중국 · 한국 · 일본의 국경을 따지지 않았으며,『황제내경(黃帝內經)』또는『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등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중국 의학의 성과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려, 조선 초기 의학을 '독자성'이나 '자주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서소영에 의해 제기됐다. 그녀는『향약구급방』이후 조선 초기까지 이뤄진 진행된 향약을 둘러싼 의학적 성취에 대해 중국 중심의 세계 속에서 자신 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없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주적인 의학 지식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향약을 매개로 조선 의학 고유의 차별성과 지정학적 정체성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7]

이상의 논의들은 대개 근대 이후 등장한 민족국가 관념과 중심-주변 이분법적 인식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심인 중국, 송의 의학이 주변부인 한반도, 고려로 전달됐음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중국과 다른 고려 의학만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향약구급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8] 한반도 의학의 독자성 여부를 입증하는 논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향약구급방』을 한반도에서 산출되고 활용되던 약물 정보, 향약(鄕藥)의 주요 논거로써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향약구급방』은 약물학 저작인 것인가? 이 책이 지향했던 본래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향약'으로 인해 이 책에 담긴 실질적인 가치나 역사적 의미가 도외시되어 온 것은 아닐까?

이하에서는『향약구급방』에 담긴 임상 의학 저작으로서의 특징을 재조명함으로써 약물학 성과 중심으로 그 중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발굴했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의학의 학문 범주 상 처방과 약물, 방제(方劑)와 본초(本草)가 구분되어 있음을 설명한 뒤,[9]『향약구급방』에서 다뤄지고 있는 병증, 그에 대응한 치료 방법, 방제 구성 및 제형, 그리고 약물 운용상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면 제약 상 이번 연구에서는 본초가 아닌 방제 중심으로『향약구급방』을 살펴보아야 함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향약구급방』및 기타 의서들을 소재로 고려 말, 조선 초기 의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은 별도 지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Ⅱ. 본론

### 1.『향약구급방』은 방제 저작인가 본초 저작인가

> "오른쪽 53부는 모두 창졸간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과 표리냉열(表裏冷熱)을 다시 살피지 않더라도 그 병에 대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록했다. 단방(單方)이나 효과 있는 약물이라도 표리냉열을 살핀 다음에 써야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잘못 써서 해를 입을까 걱정해서이다. 사대부(士大夫)들이 잘 살펴서 사용하기를 바란다."[10]

『향약구급방』하권,「고전록험방(古傳錄驗方)」과「수합법(修合法)」사이에는 위의 인용문이 실려 있다.『향약구급방』중간본 후반에 첨부되어 있는 윤상(尹祥, 1373-1455)의 발문과 다른「고전록험방」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발문 성격의 문장이다.[11]

---

5)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312.
6)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276-279.
7) Soyoung Suh. Naming the Local. Cambridge &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7:38.
8)『향약구급방』선행 연구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이기복, 김상현, 오재근, 전종욱, 신동원. 중세 동아시아의 생명, 물질, 문화 탐구. 의사학. 2019:28(1):2-3 참조.
9) 처방은 '방제(方劑)', 약물은 '본초(本草)'와 통용되기에 본문에서도 혼용 기술했다.
10)『鄕藥救急方』下卷. "右摠五十三部, 皆倉卒易得之藥, 又不更尋表裏冷熱, 其病皆在易曉者錄之. 雖單方効藥, 審其表裏冷熱, 然后用者, 亦不錄焉. 恐其誤用致害也. 庶幾士大夫審而用之."
이하『향약구급방』원문과 번역문은 모든 이경록이 번역 출간한『국역향약구급방』(2018)에 의거해 기입했다. 한국과학기술사대계 의약학편에 전해지고 있는『향약구급방』중간본은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글자가 선명치 않아 해독 자체가 쉽지 않다.『향약구급방』원문 복원은 신영일, 녕옥청 외, 이경록에 의해 이뤄져 있다.
11) 이경록은 신영일의 의견을 좇아 초간본의 범위가『향약구급방』중간본 하권 수합법(修合法)까지일 것으로 간주하고, 인용문 중의 '오십삼(五十三)'이 '오십오(五十五)'의 오식이라고 추정했다(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291, 300). 그는 중간본『향약구급방』목록에 표기된 '상권 18 중권 25 하권 12', 각 권별 편수를 근거로 추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목록이 아닌 본문 중에 기재된 제목을 실제 편별 제목으로 간주하면, 편수는 '상권 18 중권 23 하권 13'이 된다. 아울러 수합법을 후대에 보입된 것으로 간주하면 '상권 18 중권 23 하권 12'가 되어

인용문을 통해 미뤄볼 때 『향약구급방』의 편저자는 환자의 표리냉열을 살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처방인 단방이나 약물을 수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별도 병증 구분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약물을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본래 목표였던 것이다.

중국 의학사가 셰관(謝觀, 1880-1950)은 의학의 대강이 이법방약(理法方藥)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12] 이법방약은 이론, 법칙, 처방, 약물을 칭하는 단어 조합으로 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발병 원인과 병리 기전을 분명히 하고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을 확정한 뒤 처방을 구성하고 약물을 운용하는 진단과 치료의 기본적인 절차를 가리킨다.[13] 의학의 범주 안에 약물학 내용이 포섭되어 있던 것이다. 방제와 본초는 모두 치료 도구이며 본초의 조합으로 방제가 이뤄져 있지만, 관련 정보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뤄진다. 예를 들어 본초 저작들은 본초 자체의 정보 수집에 집중한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의 바탕 위에 후대의 약물 정보를 수집 정리한 『본초경집주(本草經集註)』의 경우, 약물 명칭, 성미(性味), 독성 여부, 주요 치료 대상 병증(主治), 이명(異名), 산출처, 채취 시기, 채취 부위, 가공 방법, 다른 약물과의 관계 등의 순으로 관련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14] 반면 방제 저작들은 방제 자체에 대한 정보 정리와 함께 대상 병증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한서(漢書)』「방기략(方技略)」에서는 경방(經方), 곧 방제에 대해 약물의 성질을 구분하고 질병의 정도를 헤아린 뒤 약물이 지닌 특징을 빌려 '평(平)'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15] 방제 중에 본래 증상을 변별하는 임상 의학적인 논의와 함께 약물의 성질을 파악하는 약물학적 논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16] '방제 서적의 원조(方書之祖)'로 평가 받고 있는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 역시 약물의 가공과 활용, 방제의 조합과 변화 뿐 아니라 외감 열병에 대한 육경변증(六經辨證) 체계, 잡병에 대한 장부변증(臟腑辨證)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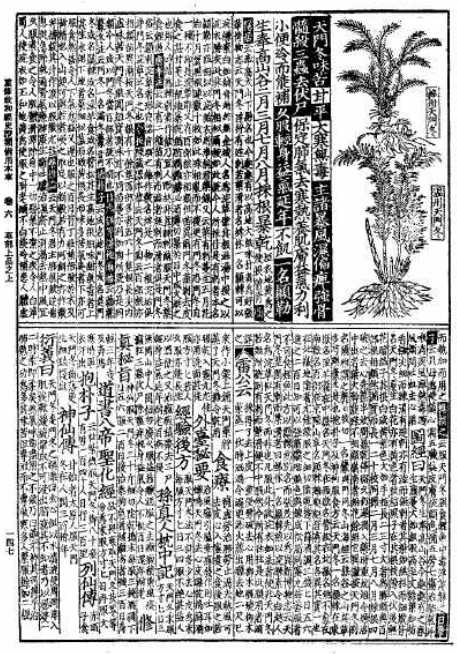

**Figure 1.**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vol. 6 Asparagus cochinchinensis

방제와 본초는 곧잘 혼용되어 소개된다. 북송 대에 편찬된 전문 본초 저작 『증류본초(證類本草)』에서는 천문동(天門冬)이라는 개별 본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외대비요(外臺秘要)』, 『경험후방(經驗後方)』 등에 수록되어 있는 천문동을 운용한 방제 역시 수록하고 있다(Figure 1). 명대에 편찬된 또 다른 전문 본초 저작 『본초강목』은 「부방(附方)」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관련 방제를 소개했을 뿐 아니라 『증류본초』에 수록되어 있던 2,935수의 방제에 5000여 수의 방제를 더해 8,161수의 방제를 수록하기도 했다.[18] 단 1개의 본초로 구성되어있을지라도 기원, 성미, 효능 등 본초에 내재된 정보를 넘어 특정 병증에 대한 본

인용문에 기재된 53부의 표기와 부합하게 되어 위의 인용문을 초간본의 발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향약구급방』 초간본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금록험방」까지를 초간본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12) 谢观. 中国医学源流论.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3:121.

13)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中医基础理论术语. 北京: 中国标准出版社. 2006:1.

14) 『本草經集註』卷第二「玉石上品」「玉屑」

15) 『漢書』「藝文志」「方技略」

16) 朱建平 主编. 中医方剂学术史. 北京: 学苑出版社. 2009:21.

17) 朱建平 主编. 中医方剂学术史. 北京: 学苑出版社. 2009:26.

18) 『本草綱目』「凡例」

초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해당 병증에 대한 인식과 치료 방법까지 포괄하는 것이기에 본초가 아닌 방제, 이른 바 단방(單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19] 리스전(李時珍) 역시 방제를 수록하지 않으면 본체(體)만 남고 활용(用)은 사라지게 된다며 본초와 방제를 구분해서 「부방」의 의미를 설명했다.[20]

『향약구급방』은 개별 병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방서(方書)로 방제와 본초의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여러 개의 약물로 구성된 복합 방제 대신 한 두개의 약물로 구성된 단방 중심의 방제를 소개하고 있으며, 약물에 대한 정보 역시 각주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약물 효능, 채취, 가공 방법 등의 전문 약물 정보는 후반부에 첨부된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鄕藥目草部)」 중에 소개되고 있다. 수록된 방제가 단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와 본초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약물 저작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약물 정보 위주로 구성된 「방중향약목초부」는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도 있다. 실제 김두종 이래 약물 중심으로 『향약구급방』을 분석해온 연구 성과들은 향약을 매개로 고려 및 조선 초기 의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 담긴 임상 의서로서의 가치는 간과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초간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방중향약목초부」를 제외하고 앞서 인용한 발문 성격의 문장에 의거해 『향약구급방』의 특징을 규정해보면 이 책은 병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간단한 약물로 구성된 단방 위주로 소개하고 있는 임상 의서다. 따라서 『향약구급방』은 약물 외에 개별 병증에 대해 어떤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향약구급방』의 구성과 병증 분류

『향약구급방』은 상 · 중 · 하 3권으로 되어 있다. 타오홍징(陶弘景)의 『본초경집주』 체제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있지만,[21] 독성 및 효능에 따라 약물의 등급을 상중하 삼품(三品)으로 구분한 『본초경집주』와 병증에 대한 설명 및 대처법을 담고 있는 의서인 『향약구급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병증에 따라 일상의 구급상황, 창저와 내상 등의 주요 질병, 전문과와 기타 질병 또는 중독과 응급질환,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와 소아과, 중풍과 기타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22]

『향약구급방』 상중하권의 편별 제목을 병증 기전 및 발병 위치 상의 특징, 진찰 상의 특징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상권 「식독」에서부터 「금창」까지의 병증은 중독, 외상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다루고 있다. 치아 질환을 칭하는 「치감닉」에 이르면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난다. 중권에 나열되고 있는 병증들은 피부, 눈 · 코 · 입 · 귀 등과 같이 몸의 외부에 병증이 존재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몸통에서 발생한 병증이라도 대소변 이상이나 가래, 출혈, 강렬한 통증(심복통) 등과 같이 내부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병증이거나 항문 및 비뇨생식기 피부 질환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병증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권에서는 부인 · 소아 병증과 함께 전신이 붓는 수종(水腫) · 몸 한쪽이 마비되는 중풍(中風) ·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전광(癲狂) · 발열과 오한이 반복되는 학질(瘧疾) · 머리가 아픈 두통(頭痛) 등 특징적인 증상 양상을 지닌 병증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인용문에서처럼 표리냉열을 다시 살피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병증에 대해 기입했다고 밝혔지만, 『향약구급방』 역시 임상 의서인 만큼 병증에 대한 세부 설명을 싣고 있다.

> "정종(丁腫)이란 한독(寒毒)이 오랫동안 뭉쳐 있다가 질병으로 발전한 것이다."[23]
>
> "열기가 찬물을 만나면 안으로 쫓겨 들어가 근골이 상하게 된다."[24]
>
> "이질 설사의 색이 푸른 것은 냉리(冷痢)이다. 붉고 누런 것은 열리(熱痢)이다. 콧물 같은 흰색의 대변

19) 단방은 단일 본초로 이루어진 처방, 단행, 단미 처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인 구성이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간단하게 구성된 치료 처방'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오재근.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 『동의보감』 단방의 편찬과 계승. 의사학. 2013;22(1):10).

20) 『本草綱目』「凡例」

21) Soyoung Suh. Naming the Local. Cambridge &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7:21.

22) 이경록 옮김. 국역 향약구급방. 서울: 역사공간. 2018:22, 이현숙, 권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 김영미, 이현숙, 김순자, 이정숙, 권복규. 전염병의 문화사. 서울: 혜안. 2010:204-208.

23) 『鄕藥救急方』中卷「疔瘡」"凡丁腫, 是寒毒久結, 作此疾也."

24) 『鄕藥救急方』中卷「湯火瘡」"熱氣被冷水, 迫入傷筋骨也."

을 배설하면서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기가 막힌 것처럼 배출되지 않는 것은 기리(氣痢)다. 이것은 냉열이 서로 뭉친 것으로 기리(氣痢)를 치료하는 약물로 다스려야 한다."[25]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일부 항목에서는 개별 병증의 발병 원인, 병리 기전, 병증의 특징에 따른 구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지 않으며, 「소아」에서는 병증의 변화가 다양해 모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록하지 않았다고 밝혀두기도 했다.[26]

**Table 1.** Classification of symptoms in *Medical Recipe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per chapter

| 권 | 편별 제목 | 병증 기전 및 발병 위치 상의 특징 | | 진찰 상의 특징 | 편수 |
|---|---|---|---|---|---|
| 상권 | 식독 육독 균독 백약독 | 중독 | 음식 중독 | 발병 원인 분명 & 병증의 육안 파악 | 15 |
| | 석교독 | | 외부에서 쏘임 | | |
| | 골경방 식얼방 | 음식물이 목에 걸림 | | | |
| | 졸사 자액사 리열갈사 낙수사 | 위급 | 물리적 손상 | | |
| | 중주욕사방 단주방 | 술 중독 | | | |
| | 타손압착상절타파 금창 | 외상 | 물리적 손상 | | |
| | 후비 중설구창 치감닉 | 입 안쪽(목구멍과 치아) | | 병증의 육안 파악 | 12 |
| 중권 | 정창 발배 · 옹저 · 절 · 유옹 장옹방 동창 악창 칠창 탕화창 단독은진방 대지창(표저 · 부골저 · 선개과창) | 피부 | – | | |
| | 전촉급죽목섬자 | | 물리적 손상 | 발병 원인 분명 & 병증의 육안 파악 | 1 |
| | 치루장풍 심복통 냉열리 대변불통 소변불통 임질 소갈 소변하혈방 | 대소변 등 몸 내부 문제 | | 특징적인 증상 | 8 |
| | 음퇴음창 비뉵 안 이 구순 | 생식기, 눈 · 코 · 입 · 귀, 입 바깥쪽(입술) | | 병증의 육안 파악 | 5 |
| 하권 | 부인잡방 | 부인 | 출산 | 부인/소아 | 2 |
| | 소아방 | 소아 | – | | |
| | 소아오탄제물 | | 물리적 손상 | 발병 원인 분명 & 병증의 육안 파악 | 1 |
| | 수종 중풍 전광 학질 두통 | 전신 및 국소 부위 병증 | | 특징적인 증상 | 5 |
| | 잡방 | 피부 질환 | | 발병 원인 분명 & 병증의 육안 파악 | 1 |

『향약구급방』에는 중독, 외상, 물리적 손상 등에 의한 위급한 증상 뿐 아니라 피부, 대소변, 생식기 등 국소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수종, 중풍 등 전신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그리고 부인, 소아 등의 병증에 대한 처치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병증의 공통점은 흔하고, 신속한 대처를 요하며, 증상이 분명하거나 눈에 명확히 보인다는 것이다.[27] 실제 전체 50편중에는 물건을 삼키거나 음식물에 중독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발병 원인이 분명하고 인후, 피부 등에서 병증이 발생해 육안으로 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8편, 육안으로 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7편, 대소변 이상이나 부종, 반신불수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지닌 병증을 다루고 있는 것이 13편, 부인과 소아를 다루고 있는 것이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향약구급방』에는 주로 변별을 위해 굳이 "표리냉열을 다시 살피지 않아도 되는"[28]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25) 『鄕藥救急方』中卷「冷熱痢」"凡痢色靑者爲冷痢, 赤黃者爲熱痢. 但下白如鼻涕, 而腹絞痛, 氣塞難下者爲氣痢, 是爲冷熱相結, 當以氣痢藥理之."
26) 『鄕藥救急方』下卷「小兒方」
27) 이현숙, 권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 김영미, 이현숙, 김순자, 이정숙, 권복규. 전염병의 문화사. 서울: 혜안. 2010:201-204.

### 3. 『향약구급방』의 치료 방법(治法)과 방제 운용

『향약구급방』 전체 문장을 치료 방법 중심으로 구분하면 610개 조문이 된다.[29] 그 중 병증 설명이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는 금기, 약물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문 외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도포하거나,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하는 등의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조문은 528개이다. 528개 조문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조문은 501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문은 27개이고, 약물을 사용해 병증을 치료하는 조문 중에서 약물을 외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조문이 271개, 약물을 내복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조문이 224개, 약물을 외용 또는 내복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조문이 5개,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조문이 1개다. 정리하자면, 『향약구급방』에는 주로 약물을 활용한 치료 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복 보다 많고 또 다양한 외용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용 방법 중에는 부착(壓 · 封 · 傅 · 付 · 貼 · 着)과 도포(塗 · 擁)가 각각 81회와 53회였고, 점적(滴) 18회, 삽입(納 · 內 · 入) 17회, 세척(洗 · 注 · 灌注)[30] 16회, 찜질(熨) 15회, 담금(浸 · 漬) 11회, 감싸기(裹 · 封 · 籠) 10회 정도였다. 이외에도 훈증(薰), 주입(灌), 목욕(浴) 등 다양한 방식의 외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향약구급방』에서 외용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치료 대상 병증이 피부, 눈 · 코 · 입 · 귀, 생식기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생한 병증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 남송(南宋) 이후 나타나는 외과 질환에 대한 '내과화(內科化)' 경향이[31] 이 책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약물을 내복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증의 발병 원인, 병리 기전에 의거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논의하는 치료 방법(治法)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32] 치료 방법의 예시로는 땀을 낼 것인지(汗), 설사를 시킬 것인지(下), 구토를 시킬 것인지(吐), 따뜻하게 덥힐 것인지(溫) 등이 있다. 『향약구급방』의 경우 각각의 병증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 뒤 그에 의거한 처방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일부 조문에서 '어혈을 녹여 물로 만든다(血消爲水)', '기운을 소통시킨다(通氣)', '몸을 따뜻하게 덥혀 한기를 몰아낸다(溫藥以却其寒)', '대변이나 소변을 천천히 배설시킨다(微微下之)', '비장을 보충한다(補脾)' 등의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처방들이 확인될 뿐이다.

방제는 대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물 사이의 관계를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원리로 설명한다. 한 개 약물을 활용하는 단미(單味) 방제로부터 출발해 복잡한 병정(病情)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 조합을 시도한 결과 복방(複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33] 이경록의 분석에 따르면 『향약구급방』 중에는 1개 방제당 1.37개의 약물이 활용되고 있으며, 식초, 꿀, 소금, 당귀, 쑥 등 일상의 식재료가 치료 약재로 빈용되고 있다.[34] 1개 방제 당 8.66개의 약물을 활용하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궁중 의서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35] 전문 약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일반 민중들의 의약 환경을 고려해 간단하게 구성된 단방(單方) 위주의 방제를 소개하려 했던 『향약구급방』 편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단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방제들에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약물을 내복하는 방제를 소개하고 있는 『향약구급방』 총 229개 조문 중에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옥호환(玉壺丸) · 옥진산(玉眞散) · 신수득효방(神授得效方) · 보폐배농산(補肺排膿散) · 신효결명산(神効決明散) · 교가산(交加散) 등 6개에 불과하다. 그 중 남즙(藍汁)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옥호환을 제외하면, 실제 치료에 활용되는 방제 중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5개다. 옥

28) 『鄕藥救急方』下卷 "又不更尋表裏冷熱, 其病皆在易曉者錄之."
29) 조문 계상은 『향약구급방』 중간본 원문을 활용하되 치료법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먼저 글자를 맨 위칸으로 기입하며 문단 바꾸기를 하고 있으면 1개로 삼았다. 문단이 바뀌더라도 내용이 이어지면 동일 조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한 개 조문이더라도 별도 치료법을 소개하며 별도의 조문으로 간주했으며, 제목 중에 치료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제목 역시 별도 조문으로 간주했다. 지면 제약 상 전체 조문 분류표는 수록하지 못했다. 별도 작업을 통해 전체 공개할 예정이다.
30) 세척으로 분류한 注나 灌注는 주입(灌)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 맥락상 세척으로 분류했다.
31) 李建民. 近世中醫外科反常手術之謎. 臺北: 三民書局. 2018:22.
32) 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편저. 한의방제학총론. 서울: 군자출판사. 2020:33-34.
33) 朱华德. 方剂的起源. 山东中医学院学报. 1994;18(3):177.
34) 이경록 옮김. 국역 향약구급방. 서울: 역사공간. 2018:33-34.
35)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266.

진산은 천남성과 방풍, 신효결명산은 결명자와 만청자, 교가산은 생지황과 생강의 2개 약물로 구성되어 있고, 신수득효방은 모추, 보폐배농산은 황기의 1개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인이 장조(臟躁) 병증을 앓아 울고 싶을 정도로 슬퍼하고, 자주 하품하며, 이유도 없이 슬픔이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방제. 감초2냥, 볶음 소맥1되, 대조10개. 위의 약재들을 잘게 잘라 물 6되와 함께, 3되로 졸아들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3회분으로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비장(脾臟)의 기운을 보충하기도 한다."[36]

『향약구급방』「부인잡방」에 실린 위의 조문은 동아시아 전통 의학 경전의 하나로 꼽히는 『금궤요략(金匱要略)』 감초소맥대조탕(甘草小麥大棗湯) 조문과 유사하다. 문장 구성이나 『향약구급방』의 인용 문장으로 미뤄볼 때 송 대 의가 허숙미(許叔微)의 『보제본사방(普濟本事方)』 문장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37] 그러나, 『금궤요략』에 기재된 감초소맥대조탕 또는 『보제본사방』에 기재된 대조탕(大棗湯)과 같은 방제 명칭은 밝히지 않은 채, 적용 병증, 방제 구성 및 제법 만을 인용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과 동일하게 방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는 「후비(喉痺)」편에서 후폐와 독기가 동반되는(喉閉幷毒氣) 병증을 치료하는 감초와 길경, 「부인잡방(婦人雜方)」편에서 출산 후 오로(惡血)가 그치지 않거나 뱃속에 덩어리가 뭉쳐 발생한 통증을 치료하는 건지황 · 천궁 · 백작약 · 당귀, 「부인잡방」 편에서 출산을 돕는(催生) 당귀 · 천궁으로 구성된 방제를 꼽을 수 있다. 감초와 길경으로 구성된 방제는 감길탕(甘桔湯), 건지황 · 천궁 · 백작약 · 당귀로 구성된 방제는 사물탕(四物湯), 당귀와 천궁으로 구성된 방제는 불수산(佛手散)이다. 감길탕(甘桔湯)은 『비급천금요방』[38] 그리고 사물탕과 불수산은 『보제본사방』[39] 중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 방제들이었다. 방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방제여서인지 이 책의 독자인 사대부(士大夫)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어의촬요방』의 경우 모든 방제에 그 명칭이 기입되어 있어 대비를 이룬다.[40]

『향약구급방』 내복 방제의 제형으로는 탕제(湯劑) 68회, 산제(散劑) 48회, 환제(丸劑) 11회, 자산제(煮散劑) 3회, 고제(膏劑) 2회가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약물을 그대로 먹는 방법 39회, 불에 태운 재를 먹는 방법 23회, 즙을 내서 먹는 방법 17회 실려 있다. 『어의촬요방』의 경우, 104개 내복 약물 중에서 그 제형이 환제 64회, 산제 19회, 자산제 10회, 탕제 6회, 고제 4회,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1회 수록되어 있다. 『향약구급방』에서 탕제와 산제 그리고 약물 그대로 복용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로는 약물을 물에 끓여 복용하거나 그대로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산제는 약재를 절약할 수 있고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활용됐다.

### 4. 『향약구급방』의 약물 그리고 침과 뜸

동아시아의 약물 이론에 대해, 중국의 의학사 연구자 정진성(郑金生)은 송 휘종(徽宗, 1100-1126)이 편찬한 『성제경(聖濟經)』「약리편(藥理篇)」의 논의를 근거로 성미(性味)와 법상(法象)을 추려낸 뒤, 성미는 경험약리(經驗藥理)로 그리고 법상은 문화약리(文化藥理)로 규정했다. 성미는 사기(四氣, 寒熱溫凉)와 오미(五味, 酸苦甘辛鹹) 등 약물의 내재적인 성질을 활용한 효능 설명 방식으로 초기 본초 저작인 『신농본초경』에서 제기됐다. 법상(法象)은 형태 · 색깔 · 성질 등 약물 외부에 드러나는 현상이나 습성, 작용,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를 활용한 효능 설명 방식으로 자연의 원리를 빌어 인체 내부의 생리 병리 기전을 추론하는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원물비류(援物比類) 사유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41]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약물 치료법 중에는 의학적 논의는 담고 있지만 설명이 존재하지 않아 성미로 구분하기 힘든 내용 역시 존재한다. 이에 의거해 경험 약리는 성미와 단순 경험,

36) 『鄕藥救急方』下卷「婦人雜方」"理婦人藏燥, 悲傷欲哭, 數欠, 無故悲哀不止方. 甘草二兩, 炒, 小麦一升, 大棗十介. 右㕮咀細切, 以水六升, 煮取三升, 去滓, 溫分三服. 亦補脾氣."
37) 신영일. 鄕藥救急方에 對한 硏究.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4:104.
38) 『備急千金要方』卷第十七「肺癰第七」
39) 『普濟本事方』卷第十「婦人諸疾」
40) 『향약구급방』과 『어의촬요방』의 비교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265-271, 291-294, 301-304 참조.
41) 鄭金生. 藥林外史.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5:54.

두 가지로 재구분해 볼 수 있다(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 mechanism in *Medical Recipe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 | | |
|---|---|---|
| 경험 약리 | 성미 | "대체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종기가 생긴다. 간(肝)은 피가 머무는 장기인데, 결명(決明)은 간의 기운을 조화시켜 원기(元氣)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42] |
| | 경험 | "무릇 식중독을 다스릴 때는 검은콩을 푹 달여서 그 즙을 마신다."[43] |
| 문화 약리 | 법상 | "막 싼 소똥을 임산부의 유방 사이에 바르면 곧바로 출산하거나 태반이 빠져나오니 그 효과가 신험하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즉시 씻어내야 하는데 늦어지면 창자까지 딸려서 나온다. 이때 새 소똥을 취하는 것은 소의 습성이 잡아당기면 똥을 싸는 것을 따른 것이다."[44] |

* 문화약리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은 중간본 『향약구급방』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향약집성방』에서 『향약구급방』을 출처로 밝히며 소개하고 있다.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약물을 내복하는 치료법 224개 중 180여개, 거의 대부분이 경험 약리에 해당한다. 그 중 병증, 병리 기전에 대한 이해와 성미에 기반 한 약물 운용은 많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약물을 사용한다는 인용문의 예시와 같이 단순 경험에 의거한 약물 운용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부의 경우, 인용문과 같이 "간은 피가 머무는 장기이다", "결명은 간의 기운을 조화시켜 원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또는 "노인의 장부 문제로 인한 변비에 복용할 수 있다. 항상 복용하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신묘하다", "비장의 기운을 보충하기도 한다" 등 기존 한의학 이론에 입각한 병증 분석과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약물을 내복하는 치료법 중 40여개는 문화 약리인 법상(法象)에 의거해 설명될 수 있다. 인용문애서 소개하고 있는 "막 싼 소똥을 취해 임산부의 유방 사이에 바르면 곧바로 출산하거나 태반이 빠져 나온다" 외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경우에는 …… 오래된 그물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복용한다. 또 입으로 가마우지라고 말하면 즉시 내려간다"[45] 등의 치료 방법은 기존 한의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소의 습성이 잡아당기면 똥을 싸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문화 약리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응(感應) 이론이다. 『향약구급방』「술을 지나치게 마셔 죽을 것 같은 것을 치료하는 처방」 중에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 오장이 문드러질까 걱정될 때는 따뜻한 물을 큰 통에 채운 후 술 취한 사람을 그 속에 담근다. 물이 차가워지면 다시 바꾸며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 『주역』에서는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으로 번진다고 했으니 자기 부류들과 ■■하는 것이다. 크게 취한 사람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셈이니, ■■■■■에 이르게 된다.[46]"는 구절이 실려 있다. 당대에 통용되던 기일원론에 입각해 약물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던 것이다. 이기복 외에 따르면 『향약구급방』의 치료 처방 중에는 이 밖에도 천인상응(天人相應)으로 대표되는 상관적 사유, 외부 독물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유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서의 유감적인 사유, 극과 극이 만나면 생명력이 전이되고 순환한다는 생각, 수리에 따라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믿음, 절차로서 상징과 의례를 안고 있는 실행 등의 의미가 포괄되어 있다.[47]

비약물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뜸을 활용한 구법(灸法)이다. 침을 활용한 침법(鍼法) 역시

42) 『鄕藥救急方』中卷「發背癰疽癤乳癰」"肝爲宿血之藏, 而決明和肝氣, 不損元氣也."
43) 『鄕藥救急方』上卷「食毒」"凡理食毒, 煮黑豆令熟, 飮其汁."
44) 『鄕藥集成方』卷第六十二「産難門」"治難産及胞衣不下, 新牛屎, 塗産婦兩乳間, 卽下, 神驗. 産下後, 卽洗, 遲則腸隨出. 取新屎, 法牛性牽出, 則放屎."
45) 『鄕藥救急方』上卷「骨鯁方」"凡骨鯁 … 又燒故魚網灰, 水和服之. 又口稱鸕鷀, 卽下."
46) 『鄕藥救急方』上卷「中酒欲死方」"飮酒過甚, 恐懶五藏, 卽以溫湯置大槽中, 漬醉人. 冷復易, 夏亦用湯. … 易云, 水流濕火■■■■其類也. 大醉人不用熱湯薰其外, 則熱氣無因外透, 至■■■■." ■는 확인되지 않은 글자를 표기했다.
47) 이기복, 김상현, 오재근, 전종욱, 신동원. 중세 동아시아의 생명, 물질, 문화 탐구. 의사학. 2019:28(1):27-28.

수록되어 있지만, 뜸 치료법이 18회 정도 등장하는 것에 비해 침 치료법은 8회 정도로 상당히 적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약물 치료와 병행되고 있다. 특히 침법의 경우 단순한 출혈을 목표로 사용되고 있고 침을 찌르는 위치 역시 창종(瘡腫)의 끝부분 또는 눈 등으로 거칠게 소개되고 있으며, 경맥이나 수혈(腧穴)의 활용법 또는 효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치료 방법 역시 소개되고 있지만, 단 1회에 불과하다. 『향약구급방』에서 침법에 비해 구법이 보다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서두에 언급한 『향약구급방』 발문 성격의 문장에서 보이듯 이 책의 독자가 침을 사용하는 전문 의원이 아닌 '사대부'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위경저(于赓哲)가 중국 당 대(唐代)에 뜸 치료법이 기층 민중들의 주된 의료 수단이었으며, 송 대에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던 것과 같이[48] 『향약구급방』 의학의 적용 대상인 고려인들에게도 침보다 뜸이 보다 익숙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 Ⅲ. 결론

중국 의가 천차오쭈(陈潮祖)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방제를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은 환자의 병증과 그 병리 기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49] 개별 약물이 지닌 정보를 파악하는데 치중되어 있는 본초에 비해 방제는 해당 병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방향에 맞춰 어떻게 약물을 구성하고 운용할지에 치중되어 있다. 본초 보다 방제가 임상 의학(clinical medicine)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50]

『향약구급방』 편저자는 이 책에 대해 표리냉열을 다시 살피지 않아도 되는 병증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수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조문마다 각각의 치료 원칙이나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혈을 녹이거나 소통시키거나 배설시키거나 따뜻하게 덥히거나 보충하거나 하는 등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치료 도구는 약물 중심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간단하게 구성된 단방 위주였다. 내복 보다 외용의 활용법이 많이 제시됐으며, 방제 제형으로는 탕제, 산제 외에 별도 가공 없이 약물 그대로를 복용하는 방식도 수록되어 있었다. 약물의 성미, 효능 등을 소개하며 약물을 조합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순 경험에 의거한 대증 처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침(鍼)의 경우 그 사용법이 제한적으로 소개됐다. 이로 미뤄볼 때, 『향약구급방』은 병증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 사대부(士大夫)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물로 곧장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급한 일종의 '가정 의학(family medicine)' 서적 성격을 지닌 구급 방서(方書)였다.

692년, 통일 신라의 왕위에 오른 효소왕(孝昭王)은 의학 교육 기관인 의학(醫學)을 세우고 『본초경(本草經)』, 『소문경(素問經)』, 『침경(針經)』 등의 중국, 당(唐)의 의서를 도입해 학생들을 가르쳤다.[51] 중국 당송(唐宋)의 의서 또는 의학 경전을 활용해 의학을 학습하는 흐름은 고려, 조선 왕조 내내 이어졌으며, 유학을 비롯한 나머지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의학 자체에 '중국'이라는 국적(nationality)을 부여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전통 의학이 이미 보편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의학이 지닌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다. 김두종이 『향약구급방』 중에서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약물, 향약에 주목했던 것은 추상적인 이론 보다는 실질적인 치료 도구를 통해 '한국' 의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의도였다.[52] 이후 향약을 매개로 한 고려 및 조선 의학의 자주성 여부 논란은 지속

48) 于赓哲. 唐代疾病, 医疗史初探.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1:154-170.
49) 陈潮祖. 中医治法与方剂.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15:83.
50) 지금도 방제학은 기초 의학에서 임상 의학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연계 과목으로 평가 받고 있다(오재근 옮김. 鄧中甲 지음. 鄧中甲 방제학 강의. 파주: 물고기숲, 2019:32).
51) 『三國史記』卷第三十九「雜志」第八
52) 김두종은 스스로 민족주의 역사학을 경계했던 1세대 의사학자였지만(이종찬. '金斗鍾 醫學史'에 대한 歷史地理學的 인식. 애산학보. 2012;38:37), 그의 대표작 『한국의학사』 중에는 '고려의학의 자주적 발전', '의학의 독립', '향약의 자립', '독립된 한국 의학' 등의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136, 153, 156, 206, 547). '향약'과 그 이후에 지속된 향약 의학의 성과를 매개로 한국 의학의 자주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한국사 서술은 당시 한국사학계의 일반적 경향이었다(박찬승. 일제하 한국 민족주의 사학과 특수보편론. 철학연구회 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43).

되어 왔다. 논란의 배경 한편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의서로서 가장 진귀하게 평가되고 있는[53]『향약구급방』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주성이나 고유성을 강조하며 한국 의학의 특색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54] 그렇지만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의학과 중국 의학이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논의나 약물만으로『향약구급방』전체 의학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전초(全草) 그대로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약물 운용 특성상 지역 별로 산출 약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지역별 산출 약물의 효능을 구분하는 것은 약물학 분야의 오랜 연구 과제이기도 했다.

약물 중심으로『향약구급방』을 살펴보고,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향약을 매개로 한국 의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는 작업이다. 다만『향약구급방』은 향약 정보를 수집한 약물 저작을 넘어 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보여주는 임상 의서이자 방서(方書)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당시 일반 민중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서로 평가되며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의해 간행됐던 고려 의서이기도 했다.[55] 따라서 약물학 분야의 성취 외에 의료 여건이 불충분하던 고려 시대에 의학 지식을 지니고 있던 지식인, 또는 고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만연해있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임상 의학 자료로써 다가간다면 고려 및 한국 의학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수년째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 신동원 소장의 주재 하에 공동 저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전 의학사 연구 모임의 성취물이다.『향약구급방』세미나는 2016년 11월 27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한국역사학대회 의사학 분과에서 초고를 발표했으며, 연세대 이경록 교수님으로부터『향약구급방』원문 및 번역문, 논문 구성과 관련된 애정 어린 조언을 받았다. 논문이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익명의 대한한의학방제학회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References

1. Kim DJ. A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Seoul: Tamgudang. 1981:136, 139, 141, 153, 169, 206, 547.
2. Miki S. A History of Medicine and a History of Disease in Korea. Osaka: self-published. 1962:61, 91-96.
3. Sheen YI. A Research on Hyang-Yack-Ku-Keup-Pang (鄕藥救急方): Restoration and Medico-Historic Investigation.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1994:104, 171, 178, 4-170.
4. Lee KL.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edicine during the Koryŏ Dynasty. Seoul: Hyean. 2010:291, 300, 312, 265-271, 291-294, 301-304.
5. Shin DW. Cholera Assaults Chosŏn. Seoul: Yuksa Bipyungsa. 2004:276-279.
6. Suh SY. Naming the Local. Cambridge &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7:21, 38.
7. Yi KB, Kim SH, Oh CK, Jeon JW, Shin DW, An Exploration into Life, Body, Materials, Culture of Mediaeval East Asia: Focusing o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of Koryŏ Dynasty. Korean J. Med History. 2019;28(1):2-3, 27-28.
8. Nyeong OC, Kim JT, Lee HJ, Kim SU, Lee SH, Keum KS. A Study on Hyang Yak Gu Geup Bang (鄕藥救急方). J.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11;17(1):70-141.

53)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139.
54) 미키사카에는 김두종과 달리『향약구급방』을 매개로 한국 의학의 고유성에 대해 논의했다(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61, 91-96).
55) 신영일. 鄕藥救急方에 對한 硏究.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4:171.

9. Lee KL. trans., A Korean Translation of Prescriptions of Local Botanicals for Emergency Use (鄕藥救急方). Seoul: Yŏksa Konggan. 2018:22, 53-351.
10. Xie G. A Theory on the Sources of Chinese Medicine. Fuzhou: Fujian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3:121.
11.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R.C. &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National Standard of the P.R.C. Basic theory nomenclatur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Standards Press of China. 2006:1.
12. Tao HJ. comps.. proofread Shang ZJ, Shang YS, Collected Annotations on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本草經集注).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127.
13. Ban G. trans. Suzuki Y. Book of Han (漢書) Treatise on Literature (藝文志). Tokyo. Meitoku Shuppansha. 1995:303.
14. Oh CK, A Single Medicine for a Disease: Simple Formula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It's Compilation and Succession. Korean J. Med History. 2013;22(1):10.
15. Lee HS, Kwŏn PK, Contagious Diseases and Views on Diseases during the Koryŏ Dynasty. In: Kim YM, Lee HS, Kim SJ, Lee JS, Kwŏn PK, A Cultural History of Contagious Diseases. Seoul: Hyean. 2010: 201-208.
16. Li JM. Unusual Mysteries in Operations in Early Modern Chinese Surgery. Taipei: San Min Book. 2018:22.
17. Joint compiling committee for Herbal Formula Science in Korean Med.. Introduction of Herbal Formula Science in Korean Med.. Seoul: Gunja Publishing House. 2020:33-34.
18. Zhu HD, Origin of Herbal Formula. J. of Shandong Univ.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4;18(3):177.
19. Sun SM. comps.. proofread Li JR, Su L, Jiao ZL, Ren JL, Li PZ. Essential Formulas Worth a Thousand Gold Pieces for Emergencies (備急千金要方) Annotated and Translated into Modern Chines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4:616.
20. Xu SW. Efficacious Formulas for Universal Aid (普濟本事方). Liu JC, Li JS eds.. The Complete Medical Works of Xu Shuwe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162.
21. Zheng JS, An Unofficial History of Drugs. Taipei: Dongda Book Company. 2005:54.
22. Yu GZ. The First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Disease and Medicine during the Tang Dynast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11:154-170.
23. Chen CZ. Strategies and formulas of Chinese Medicin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5:83.
24. Deng ZJ. trans. Oh CK. Deng Zhongjia's lecture of Herbal Formulas. Paju. Mulgogisup. 2019:32.
25. Kim BS. proofread Lee KL. The Record of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史記). Seoul: Hangilsa. 1998: 412.
26. Lee JC, Geo-Historical Perception about Kim Doojong's History of Med.. J. of Aesan. 2012;38:37.
27. Park CS, Nationalistic view of history and Particularity/Universality Theory in the Period of Japanese Rule.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eds. How to Read History.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Company. 2004:43.